



K I M R E E A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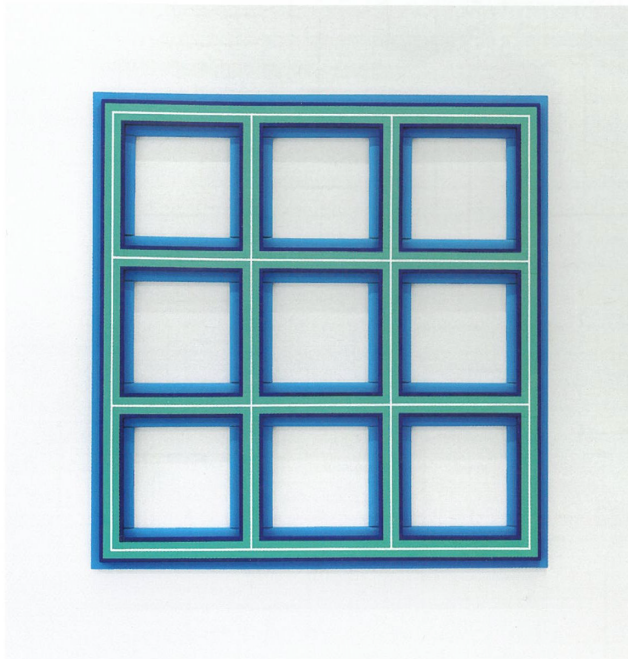
Park Taehoon

b.1993 Korea. Park Taehoon explores painting techniques that allow color and form on a static surface to evoke fresh impressions with every viewing. Through a compositional structure of layered and divided surfaces, he constructs "Parktaeria," a singular world shaped by his own perception. This process extends beyond image-making; it becomes ongoing inquiry—observation and documentation through countless layers. At the core of his work is the concept of "layers," enabling multiple landscapes, perspectives, and moments to coexist within one frame. His vivid fluorescent colors superimposed on these layers render natural imagery surreal and otherworldly. Rather than chaos, Park reinterprets reality's complex phenomena as order and harmony through painting. His surfaces become sites of visual experimentation, transforming complexity into rhythm: chaos to balance, conflict to beauty, disorder to an imagined place where feeling and perception meet.

박태훈은 정지된 화면에 고정된 물감이 반복되는 감상 속에서도 끊임없이 새로운 인상을 줄 수 있는 회화적 방식을 탐구하는 작가이다. 그는 회화에 층을 쌓고 화면을 분할해 자신이 바라보는 고유한 세계 'Parktaeria'를 구축한다. 이와 같은 작업 과정은 단지 이미지를 그려내는 행위를 넘어, 수많은 층위를 거치며 세계를 관찰하고 기록하는 탐구 방식으로 기능한다. 그의 작업에서 핵심 요소인 '층'은 서로 다른 풍경과 시점, 시간을 한 화면에 공존하게 하며, 그 위에 중첩되는 화려한 형광색은 자연 이미지를 비현실적으로 탈바꿈시킨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무수한 현상이 동시에 벌어지는 복합적인 공간이며, 이들은 끊임없이 충돌하고 겹치며 변형된다. 작가는 복잡다단한 현실을 혼란이 아닌 회화적 질서와 조화로 치환한다. 박태훈의 화면은 충돌이 아름다움으로 환원되고, 혼란이 하나의 풍경으로 조직되는 회화적 실험의 장이다.



*Parktaeria-supercomplex
(Untitled), 2024, Acrylic on
Canvas, 181.8×227.3cm*



Untitled-Connection #3,
2022, Acrylic and Pigments
on Wood Frame for Canvas,
107×107×4.1cm

Kim Ahra

b.1989 Korea. Kim Ahra explores the intersection of architecture, sculpture, and painting, navigating the boundaries between disciplines to develop her own sculptural language. Her practice pays particular attention to the structural aesthetics of traditional Korean architecture, which she abstractly reinterprets through a contemporary viewpoint. She selectively adopts architectural elements and Dancheong (traditional decorative patterns), organizing them on the picture plane through symmetry and repetition. Within the tension created by the intersection of vertical and horizontal lines, she visually reinterprets the relationships between structure, ornament, and space. Kim Ahra explores the convergence of the stretched canvas, the space beyond the surface, and the sculptural quality of the frame—bringing them together into a unified conceptual whole. Her work articulates a unique formal language that moves fluidly between painting and sculpture, structure and idea.

김아라는 건축, 조각, 회화의 경계를 넘나들며 그 교차점에서 조형 언어를 탐구한다. 특히 한국 전통건축의 구조적 미감에 주목하며, 이를 추상적으로 해석한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작가는 전통건축의 결구(結構) 방식에서 조형적 단서를 찾아 조각과 회화의 접점을 탐색하고, 구조적 분할과 균형 잡힌 비례를 기반으로 추상적 조형을 구성한다. 건축의 세부 요소나 단청 문양을 취사선택해 대칭과 반복으로 화면에 구성하고, 수직과 수평의 교차가 만들어내는 긴장감 속에서 구조와 문양, 공간 사이의 조형적 관계를 시각적으로 재해석한다. 주된 매체는 캔버스이며, 전통 문양을 재조합한 회화와 캔버스의 프레임 자체를 활용한 조형작업을 병행한다. 초기에는 전통건축 구조와 캔버스 프레임의 짜임새 사이의 조응에 주목했으며, 최근에는 그 구조물의 상징성과 존재감 자체에 더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작가는 천으로 감싼 캔버스, 그 너머의 구조, 프레임의 조각적 성격이 하나의 의미로 통합되는 지점을 탐색하며, 회화와 조각, 구조와 개념 사이를 넘나드는 자신만의 조형 세계를 구축하고 있다.